

# 광주 한방병원 전국 최다... 서울보다 44곳 많아



**보험사기 고리 끊자**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광주지역 한방병원이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러, 병원마다 환자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편·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개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짧은 기간 동안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게 사법당국과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30일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중인 한방병원(30병상 이상)은 모두 243곳으로 이 가운데 32%를 차지하는 78곳이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광주보다 인구가 7배나 많은 서울(34)보다 무려 44곳이 많다.

더구나 광주지역 한방병원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기준 16곳에 불과하던 한방병원은 2010년 25곳, 2011년 38곳, 2012년 47곳, 2013년 57곳, 지난해 69곳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만 모두 9곳이 더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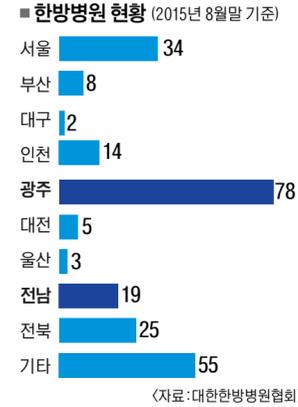
**■ 사무장 한방병원 가보니**  
**▷ 우후죽순 사무장 한방병원**  
**▷ 불법 뿌리 뽑으려면**

**지역 한의대 한의사 과다 배출**  
**소자본 개설 가능...5년간 3배 ↑**  
**환자 유인조직 운영·불법 협진도**

광주지역 한방병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지역 한의대에서 인구 대비 한의사들이 과다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일반 병원과 달리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문을 열 수 있다는 점도 한방병원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한방병원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 또 다른 병원이 문을 열 경우는 대부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의료인이 자신의 돈을 투자한



병원은 쉽게 개·폐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9곳에 달하는 한방병원이 문을 열었고, 이중 절반이 넘는 58곳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신고를 한 한방병원 자리에 또 다른 이름의 한방병원이 문을 여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3월15일 폐업신고를 한 북구 일 B한방병원 자리에 9일 뒤인 3월24일 B한방병원이 새롭게 개업했고, 4월25

일 폐업신고를 한 광산구 한방병원 건물에는 10여 일 뒤 새로운 한방병원이 들어섰다. 올해 북구에서만 모두 7곳의 한방병원이 폐업신고를 했지만 5곳에 새로운 한방병원이 개업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으로 의심돼 수사 선상에 오르더라도 폐업 신고 후 의료기록을 폐기하면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폐업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광주에 유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투자하는 형태의 불법 사무장 병원은 단속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병원들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의료실비 보험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병원마다 3~5명에 이르는 환자 유인 및 알선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가 비급여 진료비를 타내기 위해 불법 형태의 양·한방 협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는 물론 경미한 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입원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페이퍼 환자’도 있다”며 “보험범죄 전담팀과 수사관이 부족하고, 지연과 학연에 의한 인척 유착이 심각한 것도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해질 20:46  
해짐 18:18    달짐 09:41

**돌풍주의**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19/22	보성	19/22
목포	18/22	순천	19/22
여수	19/21	영광	18/22
나주	18/22	진도	21/22
완도	20/22	전주	18/22
구례	18/22	군산	18/23
강진	20/22	남원	17/21
해남	21/22	축산도	18/21
장성	18/22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1.5~2.5	서~북서	2.0~3.0
	면바다	남~남서	2.0~3.0	서~북서	3.0~5.0
남해	앞바다	남~남서	2.0~4.0	서~북서	1.5~3.0
	면바다(동)	남~남서	2.0~4.0	서~북서	2.0~4.0
	면바다(서)	남서~서	2.0~4.0	서~북서	2.0~4.0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40
빨래	6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09	09:15	16:41	21:41
여수	밀물		썰물	
	11:10	04:42	23:22	17:06

**◇ 주간 날씨**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	☀	☀	☀	☁	☀	☀
13/22	13/24	12/24	12/24	13/24	13/24	12/24

## 불법 사무장병원 변질 우려 광주시 의료생협 전수조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의료생협 설립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광주일보 9월18일 6면)에 따라 행정당국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30일 지역 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49곳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위법사실이 드러난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행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조합원 명단의 실제 부합 여부 등 서류점검과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2004년 이후 49곳의 의료생협이 개설됐지만, 어떤 명칭으로 병원이 운영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18일 광주 서부경찰이 의료생협 형태로 운영되는 광주 N병원과 M병원을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했다. 특히, 이들 병원의 ‘공짜 성형수술’ 유혹에 빠져 300여명에 달하는 주부·학생·회사원들이 보험사기 전과자로 전락하자 광주시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

## “AI 물렸거라”



전남에서 발생한 조류독감(AI)이 광주까지 확산된 가운데 지난 30일 오전 북구청 소속 직원들이 지하동의 한 닭 축사에서 방역차를 이용해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도교육감 ‘누리 예산’ 공동 대응

**5일 협의회...정부 압박 강화**

광주·전남을 비롯, 일선 시·도 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 방향이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오는 5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안전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최고 현안이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 관련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일반적 시각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미 지난 5월 반대결의문 채택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현안이라는 점에서 긴급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 대정부 압박 수위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광주·전남 교원 689명 선발

**12~16일 온라인 원서접수**

광주·전남 교육청은 2016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특수학교 교사 등 모두 689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지역 선발 인원은 유치원 교사 9명, 장애인 2명을 포함한 초·특수교사 20명이며 특수학교 교사 5명(유치원 1명·초·특수 4명) 등 34명이다. 전남은 유치원 교사 84명(일반 80명·장애 4명), 초·특수교사 552명(일반 493명·장애 33명·도시근무 8명·시·군·특수교사 19명(유치원 9명·초·특수 10명) 등 655명)이다.

원서접수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1차 시험은 11월 21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5~7일에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대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민장
- 배수갑문
- 양수장
- 저수지
- 골프장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구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jM 물관리자동화

주식회사 대영 daeyoung (062) 670-0300